범어사, 불교문화 거점으로 우뚝선다

9월 11일 성보박물관 시삽, 2020년 완공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연면적 890평 1개동 규모
12월엔 사하촌 상마마을에
禪 체험의 문화교육관 완공
"성보 및 선문화 알릴 기회"


범어사와 사하촌 상마마을이 불교문화를 알리는 거점으로 변모한다. 사진은 9월 11일 열린 성보관 개토식 모습.

범어사 사하촌 상마마을이 새로운 불교전통문화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11일 성보박물관 '성보관 건립 개토식'을 개최했다. 성보관 개토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산재로 시작한 행사는 주지 경선 스님의 인사말, 테이프 커팅 및 시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후 새롭게 건립될 성보관은 대지면적 1만㎡(3025평), 연면적 2951.55㎡(890여 평)의 건물 1개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져 있다. 불사 기간은 2년으로 완공 후 범어사 성보를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범어사 안팎에서는 기존 성보박물관의 규모가 작아 새로운 성보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범어사는 부산시 문화재의 1/3인 10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찰 중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 보물인 〈삼국유사〉는 현재 국보 승격을 신청한 상태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도를 비롯해 조선 후기 불화 70여점 및 40여점의 진영 그리고 책판 16종, 편액 23종 등 불교문화재가 있다.

주지 경선 스님은 "2003년 급작스럽게 건립된 성보박물관은 수많은 범어사 문화재에 비하면 턱 없이 작은 규모였다"며 "세미나실이 없고, 직원 사무실도 열악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보를 대중들에게 잘 보여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성보관 개토는 범어사의 성보를 알리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중요한 불사다"고 강조했다.

성보박물관 불사 소식과 함께 다가올 12월에는 범어사 상마마을에 불사 중인 선문화교육관이 완공된다. 선문화교육관은 국비 21억, 시비 20억, 구비 1억, 범어사 자비 28억 등 총 70억이 투입된 불사로 상마마을 사자암 일대에 위치한다.

선문화교육관은 대지 면적은 5315㎡이며, 건축면적은 1832.58㎡, 총 연면적은 2981.27㎡ 규모로 선체험교육관 및 선문화관 등 2개동으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숙박형 템플스테이, 명상 체험, 사찰음식 체험, 다도 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꾸며지며, 한국의 고유문화인 선(禪)을 보급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의 세계를 소개할 공간이다.

이와 함께 상마마을 진입도로도 10월 중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확대 개통돼 접근성도 높아져 활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는 9월 10일 53선지식 1000일 화엄대법회를 열고 추석맞이 사랑의 백미 20kg 200포를 부산 금정구청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수관 범어사 신도 회장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범어사는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찰이고 도량"이라며 "함께 정진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조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버드나무 심기도 '방생' 입니다"

불교환경연대 방생법회 모집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9월 29일 영산강, 10월 20일 낙동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추진한다.

불교환경연대는 2017년부터 3개년 중점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버드나무는 1주당 1만원으로 버드나무 방생법회 동참금은 2만원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은 무료로 봉사시간 4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9월 15일 금강 합강공원에서 불교환경연대 회원들과 논산 지장정사 법원 스님, 신도들이 참여한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일 스님은 "강에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강을 살리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는 것 역시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장학퀴즈대회 더한 '제10회 나란다축제'

9월 8일 동국大 서울캠퍼스서 개막



2인 1조로 총 8개 팀이 참여한 장학퀴즈 고등부 대회.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서 '제10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나란다 장학퀴즈대회'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인 1조로 총 8개 팀이 참여한 장학퀴즈 고등부 대회는 1단계 연상퀴즈, 2단계 객관식, 3단계 주관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장학금 300만원의 주인공은 칠곡도량 대표 정태현 · 권기현 학생이었다.

정태현(고1) 군은 "고학년 형, 누나들이 교과 · 시사상식 문제를 더 잘 맞출 거라 생각해 우승할 줄 전혀 몰랐다"며 "어릴 적부터 포교사인 아버지와 함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나란다 축제는 불교교학 프로그램인 '불교교리 경시대회' '나란다 장학퀴즈' '우리말 독송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붓다야! 놀자' '전통문화체험마당'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전통예술 경연대회' 등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독송대회 무대 주변으로 동국대 학생회 등이 준비한 다양한 놀이부스들이 펼쳐졌다.

지홍 스님은 "청소년과 청년들 신심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미래사회 큰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축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즐겁게 배워 앞으로 삶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전! 범종을 울려라' 결선은 충남 계룡대서 마무리된다. 동국대서 진행된 일반부와 초등부에 이어, 10월 6일 5개 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베트남 민간희생자' 위해 나서다

사노위 · 원오사, 9월 9일 베트남戰 양민 추모제 봉행



추모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아미타불 정근을 하는 모습.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
50주기 기려 희생자 추모…
정부에 공식사과 · 배상 촉구

"베트남 전쟁기간 국군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은 80건, 희생자 수는 9000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베트남 불교사찰인 인천 원오사(주지 틱 뜨엉 탄)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베트남전쟁 양민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 사회국장 해공 스님과 사노위 소속 스님, 베트남 팃 정 만 스님을 비롯, 전국 재한 베트남인 250여 명이 추모에 동참했다.

이번 추모제는 한국 불교계가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반성하고, 희생자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올해 '베트남 하미 양민 학살 사건' 50주기를 기리며 늦었지만 희생된 베트남인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1968년 2월, 한국 해병대 소속 청룡부대는 베트남 꽝남성 소재 하미마을의 비무장 민간인 135명을 학살해 가매장했다. 2시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무고하게 희생당한 이들은 이미 피신해버린 남자들이 아닌,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이 주를 이뤘다.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에 대해 스님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베트남전 양민 희생자 분들이 한국 스님들의 목탁과 염불소리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위안삼아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부처님께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정부는 이 분들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희생자 유가족 · 베트남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불교계도 한국 불교계와 함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베트남불교협회 중앙예식국 부국장 팃 w찌 스님은 팃 정 만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서 "최근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양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처님 제자로서 포용과 자비로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함께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통역을 맡은 원오사 부대표 루이엔(41) 씨는 "조계종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중간 중간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이며 통역을 계속했다"며 "베트남도 아닌 머나먼 한국에서 베트남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준 것이 감동적이다. 한국인들이 과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 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사노위 측은 한국서 치른 추모제에 이어 내년 베트남 현지서 양민 희생자 위령제를 거행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포럼 개최

9월 6일 현황점검 · 해법모색

서울시가 만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는 서울시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최로 9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서 '제1회 시니어일자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성미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임종국 서울시의회 종로구 시의원을 비롯, 시니어 구직자 · 구인처, 일자리 지원기관 실무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니어를 위한 내-일(Job&Future)을 실험하다'란 주제 아래, 행사는 공공 · 민간 양 부문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해 1부 기조강연(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2부 패널토크로 나눠 진행됐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시니어 일자리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시니어일자리포럼을 마련했다"며 "본 포럼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발굴 및 민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金井叢林 梵魚寺

부처님 마음
한가위 마음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불기 2562년 9월 10일 실시한 사랑의 백미 전달식 모습

방 장 지유 큰스님
주 지 경선
총무국장 보운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박수관 합장

매월 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화엄천일기도]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